

† 마데테스는 체자라는 뜻의 헬라어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기를 소망하는 신자를 돕기 위해 발행됩니다 †

# 마데테스



표어 : 너나 잘하세요

은석교회는



교회를 나의 자존심으로 삼지  
않으며 오히려 그 자존심조차  
악으로 귀찮하며 스스로를  
비관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진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교회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형통과 축복을  
바라보지 않으며 오로지  
불쌍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열망으로만  
모이기를 힘씁니다.

어제, 오늘, 내일

신윤식

한 자리에  
머물 틈도 없이  
오늘이 어느새 어제가 되고  
내일은 또 다시  
오늘이라는  
무서운 얼굴 되어 달려온다.

어제, 오늘, 내일이  
발목을 감아 흐르는  
세찬 물살처럼  
다가오고 흘러간다.

어제를 후회하고  
내일을 염려하는 것으로  
생각이 가득한 사이  
세월은 어느새  
저만큼 멀리 가 있다.

어제, 오늘, 내일  
잠시 후면  
그 끝에 서게 되리라.

대한예수교장로회

## 은석교회

교회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13-8

홈페이지 : <http://www.onlycross.net>

☎ (교회) 421-9049 (사택) 425-9049 (핸드폰) 010-5831-9049  
(E-메일) sys5806@hanmail.net

발행인 신윤식 목사

발행일 2013.7.7

발행호수 제21권 27호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과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그 나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질서나 원칙, 또는 상식을 기준하여 예수님이 이루실 그 나라를 생각한다면 백이면 백 잘못된 나라를 상상하게 될 것입니다.

다. 대표적으로 차등 상급론이 이에 해당됩니다. 세상에서 쌓은 공적에 따라 하늘에서 주어지는 상이 다르다는 것은 행한 공적에 따라 차별 대우하는 세상 질서와 원칙에 의한 시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 질서와 원칙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질서와 원칙을 본질로 하고 있음을 예수님의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가령 일찍 부름 받은 품꾼이나 가장 늦게 부름 받은 품꾼이 주인에게 동일한 품삯을 받았다는 포도원 품꾼 비유가 그 같은 사실을 증거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포도원 주인으로 비유하여 말씀했습니다. 일한 시간에 따라 품삯에 차등을 두어 지급한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지급한 것이 곧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 상에 차등이 있는 것으로 말하는 것은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고 단지 몸담고 있는 세상의 질서와 원칙을 그대로 적용한 인간의 생각일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대개의 사람은 이러한 천국에 생소한 반응을 보입니다. 품삯은 일한 시간의 양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급하는 것이 공평한 처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생각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품꾼이 일한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품꾼들은 하나같이 주인이 불러 주지 않으면 포도원에 들어 올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불러 주었기에 일할 수 있고 품삯을 받아 그날의 양식을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불러 주신 주인의 은혜에 초점을 두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는 자신이 일한 공적을 내세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바로 이러한 천국 백성으로 세상에 머물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자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이 돌아갈 본향이 어떤 나라인지는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장차 들어가 영원히 거할 천

주일오전설교  
눅 12:35-48

준비하고  
있으라

국이 어떤 나라이며 어떤 질서와 원칙을 본질로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면 그것은 그 나라에 대해 관심이 없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깨어 있지 못한 종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종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인이 혼인을 하는 신랑일 수도 있고 신랑의 아버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친척이나 이웃의 결혼식에 참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혼인 예식을 한 밤중에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이 할 일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아무도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면 종에 대해 노여움이 있게 될 것입니다.

35절에서 예수님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고 하십니다. 이것은 종의 모습입니다. 그냥 종의 모습이 아니라 출타한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있다는 것은 아직 잠자리에 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주인이 돌아오지 않았는데 종이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없을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 문을 열어주어야 그날의 종의 일이 모두 끝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일을 위해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절에서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고 하시면서 이것이 그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에 마음을 두고 있는 신자임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조금 이상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을 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종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띠를 띠고 수종을 드는 것은 종의 일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스스로 종이 되어서 종을 시종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과 주인의 자리가 뒤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질서와 원칙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번 종은 자자손손 대대로 종의 신분으로 태어나고 주인은 계속 주인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지금의 사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비록 고대 사회처럼 종과 주인

이라는 신분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급 사회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딜 가도 갑과 을의 관계가 존재하고 있고 시중을 드는 사람과 대접을 받는 사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주인의 자리에서 대접을 받게 되고 돈이 없는 사람은 종의 자리에서 시중을 들게 됩니다. 이것이 이 사회의 질서고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 질서와 원칙은 세상 마지막 때까지 사라지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 질서와 원칙이 단 하루라도 사라진 적이 있었을까요? 다스리는 자가 있어야 세상이 질서 있게 흘러간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이 상식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원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종의 자리가 아니라 주인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시중드는 사람이 아니라 대접 받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일컫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는 문제로 다투게 된 것 역시 예수님이 이루실 그 나라를 세상의 질서와 원칙에 의한 시각으로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질서의 나라를 말씀합니다. 그 나라가 돌아온 주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혼인집에 간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종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주인이 돌아와서 띠를 띠고 종을 시중드는 것처럼 종의 자리에서 섬김을 실천하라는 뜻일까요? 신자에게서 섬김이 나타나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인과 같은 섬김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우리 속에는 종이 아니라 주인의 자리에 앉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시중드는 사람이 아니라 대접 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동일한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과연 주인과 같은 섬김을 행할 수 있을까요?

간혹 세족식이라는 행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처럼 섬김의 본을 보인다고 하면서 목사가 교인의 발을, 또는 교인들이 서로의 발을 씻겨 주는 일을 합니다. 이것을 모방해서 회사나 어떤 단체에서도 세족식이라는 것을 행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세상이 변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결국 일시적인 이벤트로 끝날 뿐입니다.

참된 섬김은 오직 주인에 의해서만 행해질 뿐입니다. 즉 우리는 섬김을 모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섬김을 실천한다고 해봐야 일시적인 것이고 흉내 내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 세상이 설사 기독교인으로 가득 채워진다고 해도 본문의 주인이 보여준 새로운 질서의 나라는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결국 새로운 질서의 나라는 우리가 실천해서 이루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종은 그저 막연하게 주인이 돌아올 때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돌아와 이루실 새로운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아는 종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주인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것이고 이러한 종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실 새 나라가 어떤 질서와 원칙의 나라인가를 안다면 당연히 섬김 받고자 하고 주인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것은 그 나라와는 맞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섬김을 받는 자리에 앉기 위해 예수님을 찾지 않을 것이고 그것을 성공으로 여기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현대 교회에서 종종 언급되는 목사의 권위주의라는 것도 새 나라에 마음을 두고 있음으로 나타나는 욕망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4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종이 종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이유로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십니다. 인자의 오심을 믿고 기다리시는 신자가 준비해야 할 것은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질서와 원칙들은 새 나라가 임하게 되면 무너지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러한 앎이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자로 모이는 여러분의 관계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와 섬기는 자가 따로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가 없습니다. 목사든 장로든 여러분이 세움 받은 위치는 오로지 섬김을 위해 주어진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일어나야 할 개혁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수없이 말씀 하셨습니다.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는 말씀이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모든 품꾼이 동일한 삯을 받은 것이나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던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부인당하고, 오히려 자랑할 공로는커녕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던 세리와 창녀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들이 세상과는 다른 질서와 원칙으로 세워진 새 나라에 대한 증거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가 낯설게 다가온다면 그것은 지금의 세상 질서와 원칙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인이 대접 받고 종이 시종들어야 하는 세상 질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에 붙들려 있는 한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실 새로운 나라에 마음을 둘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각기 처한 형편이 다릅니다. 세상의 질서에 따라 시종드는 위치에 있을 수 있고 대접 받는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심을 믿고 새 나라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교회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새로운 세상의 질서에 이끌려 사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주인이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는 종이라고 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으며 봉사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기도나 성경 읽기 봉사 등이 예수님께 인정을 받게 하는 근본 이유가 아니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종교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실 의로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에게 부인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한 것에 있습니다. 세상 질서와 원칙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그들은 인간의 공적과 행위에 따라 사람을 판단했고, 메시야가 오심으로 이루실 나라 역시 그 같은 기존의 질서와 원칙이 존재하는 나라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세계는 기존의 질서와 원칙이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세상의 주인이시면서도 피조물, 즉 종에 의해 죽임을 당하시는 것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종에 의해 죽임을 당하신 것은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한 무지한 자들을 섬기신 섬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사건이 의미한바가 무엇인가를 알고 십자가 앞에 나오게 된 신자는 기존의 질서와 원칙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을 진실한 종과 악한 종으로 나누어 말씀합니다. 42절의 진실한 종은 주인이 맡긴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줍니다. 반면에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며 남녀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합니다. 자신도 종이면서 주인이 없는 자리에서 주인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종은 주인이 맡긴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주인 행세 하는 것에 맛 들이고 살 뿐입니다. 하지만 주인의 뜻을 안 종은 그 뜻에 맞는 길로 가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신자는 주인에게 많이 받은 종입니다. 따라서 주인은 우리에게 많이 찾으실 것입니다. 무엇을 찾으실까요? 그것은 늘 십자가로 드러난 새로운 나라에 마음을 두고 그 나라를 구하는 신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자는 심판 받을 종에 불과한 자신에게 구원의 의가 되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길 것입니다.

.....

**신** 자가 하나님을 신양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재주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고, 도움을 구할 사람조차 없거나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일에는 신의 도움을 구하기도 합니다. 물론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도움의 요청을 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있다고 해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면서 모든 일은 자신에게 달렸다고 장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늘을 바라보며 신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나약한 모습으로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그 어떤 힘과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죽음의 문제일 것입니다. 다만 신의 존재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부

주일오후설교  
시 121:1-8

**도우시는  
하나님**

(125강 6.9일 설교)

정하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도움을 구할 필요가 없다고 여길 뿐입니다. 즉 죽음을 두고 신의 도움을 구한다고 해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은 그저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 신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죽음을 두고 신의 도움을 구한다고 해서 육신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영혼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실제적 문제가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인간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과 사망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알기에 신자는 죽음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처해있는 실제 현실임을 생각한다면 신자가 하나님께 구할 도움은 육신의 문제가 아닌 영혼의 문제여야 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대개는 육신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1절)라는 구절도 자신이 처한 기본적인 현실을 염두에 두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왜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분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고대인은 물론이고 현대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은 하늘에 존재하는 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고 하는 것이 더 사실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121편은 막연하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도와주기를 청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려면 신자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없어야 하고, 있다고 해도 금방 해결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신자 역시 불신자와 다를 바 없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상처를 입으며 힘들게 살아갑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삶의 현실은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움이 해결되었다고 간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은 일부 사람의 이야기일 뿐 대다수의 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나를

도와줄까?’라는 의문의 말이 아니라 ‘나의 도움은 하나님에게서만 온다’는 확신의 고백입니다. 저자의 확신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2절)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한 확신이 있습니까? 이 확신이 없다면 그것은 지금까지의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한 것임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생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순탄하게 나아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순탄한 인생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시편 저자 한 개인의 경험과 고백이 아닙니다. 3,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요 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요”**고 말합니다. 저자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도우심은 한 개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은 이스라엘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난한 자든 부자든, 세상일에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지키심과 도우심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세상 문제와 연결하여 생각한다면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신앙은 우습게 보일 것입니다.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쉬운 문제를 두고 기독교인은 염려하고 불안해하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만 찾고 매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처한 형편과 상관없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세상 전부를 살 돈도 도움이 안 되고, 세상을 뒤 흔들 권력도 도움이 안 되는 인간의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입니다.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은 시온 산에 있습니다. 이점을 생각하면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시온 산을 바라본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자는 시온의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어떤 도움을 기대했을까요?

저자가 하나님에게서 육신의 문제를 위한 도움을 받고자 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을 찾고 그 사람과 연결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실질적인 도움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도울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것은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혼의 문제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영혼의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영혼은 죄에 붙들려 있습니다. 마귀의 미혹에 빠져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 살 뿐입니다. 이러한 인간이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자비하심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마귀의 유혹으로 죄에 빠져 삽니다. 이러한 우리를 도와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재물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하나님 한분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지키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영원까지 계속되어진다는 것이 8절의 말씀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구원을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의의 길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영원까지라면 그것은 곧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생에 마음을 둔 신자는 '나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에게서로다'는 고백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자가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겪는다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 아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는 인간의 사정보다 하나님의 사정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려움과 환난에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신자 된 사람의 할 일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 어떤 인생에서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뿐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는 믿음에 이끌려 살기 때문입니다.

**본** 문은 예레미아가 여전히 시위대 틀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한 내용입니다. 예레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레미아를 가둔 사람들은 여호와와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빙자하여 유대 민족을 혼란케 하는 말을 외쳤다는 이유로 가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포위당한 상태에서 예레미아는 유다의 패망을 외쳤고, 이 말이 당시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심히 불편하게 했던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고 말합니다. 이 말씀대로 본다면 당시 유다가 처한 상황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뜻하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신 일입니다.

당시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포위된 지 일 년 반쯤 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수많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이 유다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유다 입장에서 이 같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를 패망케 하신다는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도우시는 분이기에 때문에 바벨론을 물리치고 다시 예전의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기에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유다를 이방인의 손에게 넘겨 줄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거짓 선지자들은 열심히 평화를 외치며 유다 백성을 안심시키고 희망과 위로를 주고자 했습니다. 반면에 예레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감 없이 외쳤고, 유다 백성은 그 말을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에게서 나올 수 없는 말로 여겼기에 말씀을 빙자한 거짓된 말로 백성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명목으로 붙들어 가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유다의 패망에 뜻을 두고 계십니다. 비록 유다가 바벨론의 칼을 대항하여 싸운다고

수요일설교

렘 33:1-10

크고

은밀한 일

(82장 5.29일 설교)

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고 시체로 성을 채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이유를 유다의 악행으로 말씀합니다.

유다가 패망하게 된 이유로 부각된 악행은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죄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지 않고 자기중심의 신앙을 추구한 죄를 의미합니다. 자기중심의 신앙이란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이방인이 찾는 우상과 동일한 존재로 간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악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부정한 시체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서 유다의 악행에 대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6-1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레미야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하십니다(3절).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고 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이 시체로 가득 채워질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시며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왜 일찌감치 이스라엘은 앗수르에게 망하게 하시고 지금은 또 유다를 망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여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는 다른 무엇보다 현재의 평안과 행통을 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유다를 세워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망하게 하신 후에 치료하여 고쳐 낮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유다가 범하고 행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정하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로 인한 무조건적인 은총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유다를 엄청난 고통으로 밀어 넣으시는 것입니까? 어차피 아무런 조건 없이 그들의 모든 악행을 사하실 뜻이라면 처음부터 고통이 없게 하시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유다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항상 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으로 이어진 현재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1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유다에게 세우신 뜻은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는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유다가 망한 상황을 말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노래하는 소리가 없는 유다의 실상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노래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황폐한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날 교회에 몇 명이 모이느냐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몇 명이 모이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마음을 두지 않음으로 감사와 기쁨의 노래가 없다면 사람이 없는 황폐한 상태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유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은 유다를 비참한 상태에 밀어 넣으셔서 그것이 악행으로 인한 유다의 실상임을 보게 하시고 그럼에도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정하게 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같은 뜻을 세우시고 일하시고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고통과 어려움에 처한다고 해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며 하나님이 돕지 않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한 감사와 찬송을 듣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신자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어떤 형편에서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만 신앙하게 됩니다.

## ■ 오전예배 ■

11시 / 인도 신윤식 목사

묵상기도 : 다 함 께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83장  
교 독 : 6(시10편)  
기 도 : 이성희 장로  
찬 송 : 246장  
성 경 : 눅 12:35-48  
말 씬 : 준비하고 있으라(66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450장  
교회소식 : 이영민 장로  
찬 송 : 4장  
축 도 : 설 교 자

## ■ 오후예배 ■

2시 2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427장  
기 도 : 김현동 집사  
찬 송 : 480장  
성 경 : 시 124:1-8  
말 씬 : 우리의 도움은(128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374장  
주기도문 : 다 함 께

## ■ 수요일예배 ■

7시 3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예레미야 강해(86강)

## ■ 교회소식 ■

1. 예배 후에 제직회 모입니다
2. 김상수 집사님께서 지난 월요일(1일)에 소천 하시어 수요일(3일)에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다음주 기도

오전 - 이영민 장로      오후 - 김옥자 집사

## 이단 ㉔

이처럼 이단의 성경공부는 몇몇 구절을 조립하여 자신들의 주장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교인이 자칫 그들의 가르침에 현혹되면 나중에는 그들이 주장하는 모든 것을 성경적인 진리로 받아들이기 십상이다. 또한 애초부터 기존의 교회가 말하는 것은 모두 성경에서 벗어난 잘못된 것으로 세뇌시키기 때문에 이단에 미혹된 자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게 되는 심각한 상태에 빠지며 그들의 사상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안상홍을 성경이 계시한 새 이름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도 자기들 멋대로 성경 구절을 조립하여 해석하는 것에 미혹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이 말한 새 이름은 안상홍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계 2:17 하반절)는 구절을 인용하여 안상홍을 믿는 자 외에는 새 이름을 알 수가 없다고 하면서 안상홍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안상홍은 계 2:17절에서 말한 ‘감추었던 만나’가 유월절이라고 말하지만 감추었던 만나는 장차 주어질 참된 생명의 양식에 대한 상징이다. 참된 생명의 양식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자신을 하늘로부터 온 참된 떡이며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진 하늘의 양식인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감추인 만나는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며 유월절 절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취되었기에 더 이상 절기를 지켜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또한 흰 돌 위에 기록된 새 이름은 죄에 대해 승리하시고 그 승리에 참여하게 하시는 복을 누리게 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다. 흰 돌을 받는 자 외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기 이름을 알려주고자 작정하신 택한 자만 알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알게 된 사람은 모든 관심을 생명이신 주께만 두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성경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증거한다는데 초점을 두고 살펴보면 안상홍 증인화는 물론이고 모든 이단이 주장하는 것들이 참으로 어이없는 내용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만 말해주면 이단에 빠진 사람도 그들의 잘못된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큰 착각이다. 앞서 말한 대로 이미 잘못된 가르침에 세뇌된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의 말은 무조건 잘못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가령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성경을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교회에는 구원이 없고 하나님의 재앙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교회에 속한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이단은 자기들의 말만 듣고 믿게 하면서 교인들을 단속하는 것이다.

이단의 활발한 활동에 대해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것은 참된 복음의 증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중심이 된 참된 복음이 증거 되고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간다면 그 어떤 이단에 대해서도 염려할 것이 없다. 참된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라면 복음과 거짓 복음을 능히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